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5월 14일(화)

윤석열 대통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

- 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일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14 화) 오후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풀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윌포워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 상기 미국과 일본 인사들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아산플래넘(5.14)’ 참석차 방한 <끝>